

“...»”-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역사인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학생들은 국사를 필수교과목으로 교육 받은 세대와 현저히 변별되는 역사인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는 일본의 독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이어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의 제7광구를 비롯한 해양영토 경계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정책의 여진 속에서 관망만 해오고 있었다. 일본과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불만을 소극적으로 제기해 왔을 뿐 정작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역사교육이 부실하다는 인식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중도’, 올바른 역사관의 전제조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처방은 ‘현재의 중3부터 대학입시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한국사 시험을 치르겠다고 것으로만 학생들의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과서 간행 그리고 역사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은 ‘독도’와 ‘이어도’ 등의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 자국의 초·중·고교생들에게 교육을 시켜가고 있다. 그러면 주변국들의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까?

대외적으로는 ‘대마도’ 한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어도’와 ‘해양경계선’에 대한 굳건한 수복의지를 천명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대마도를 자주 찾아가고 이어도와 해양경계선에 어떠한 설치물을 세워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학교 역사교과서를 놓고 재개되고 있는 좌우 이념공방에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야만 하는 것일까?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범어 ‘듀카’ (고통)의 어원은 굴러가는 두 바퀴가 균형이 깨어져

빠져떨어지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한 바퀴가 찌그러져 있거나 부서져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과 소리 등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불만족과 불안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의 시각’ 즉 가장 올바른 길(中道)이라는 균형각각이 요청된다. 최근 우리의 역사와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역시 균형각각을 잃어버리고 좌편향 혹은 우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바퀴 역시 올바르게 나아가기 어렵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탄탄한 균형과 든든한 동력이 뒷받침된 수레바퀴여야만 일본과 중국이라는 대국과 공존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 탄탄한 균형과 든든한 동력은 ‘역사를 보는 올바른 눈’과 거기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간행 그리고 그것에 의거한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사 간행 <한국사>의 검정 통과를 두고 좌우 이념에 입각하여 제기되는 논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대내외의 여러 문제들

에 대한 자신들의 시선을 국내로만 좁혀서 축소시키고 있고, 한국의 우파들은 오랜 경험과 통찰로 자신들의 시선을 세계와 국제로 뚫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논리에 휘둘러 끌려다니고 있다.

때문에 우파들은 민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무지하고, 좌파들은 민족의 의미와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더욱이 좌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한 채 친미와 친일의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익을 위해 미국에 앞서 월남 파병을 제일 먼저 창안한 이가 이승만이며,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장 강조한 이가 박정희라는 팩트 즉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해방 이후 분단의 시점에서 김구를 중요시하는 것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통찰하는 예지가 급선무일 것이다. 좌편향과 우편향을 넘어서는 중도 지혜의 사관 확립과 균형각각에 기초한 역사교과서의 간행 그리고 역사교육의 실행이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일본 인터넷 불교언론 한국 템플스테이 체험기

템플스테이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관광자원이다. 산사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는 같은 불교문화권인 이웃나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인터넷 불교 언론에 게재된 ‘대한민국 템플스테이 체험기’를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한국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 수는 연간 약 10만 명. 2012년 방한한 외국인 수 1100만 명을 놓고 본다면 110명 중 1명은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오는 셈이다.

일본과 한국불교는 함께 대승불교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독경, 염불, 건축 양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6월 초, 한국사찰의 초청을 받아 직접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보니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강릉도 평창군 월정사. 저녁에 도착해 수련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니 스님께서 사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다. 절하는

법, 경내 이동시 걷는 법 등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짧은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보았는데 부모와 자녀 간 함께 참여해도 괜찮겠구나 싶었다.

그 후 바로 저녁 예불에 참석했다. 법고와 운판, 범종의 음색이 독특했고 아름다웠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선 불교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지도하에 타종을 해보기도 했다. 그 울림이 몸에서 전해졌다.

식후 차담시간에서, 해행 스님은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불교는 학문, 수행, 기도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일본에 유학해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 불교는 학문으로 치자면 제일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수행 면에서는 그 전통이 한국 불교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밤 9시 취침에 든다. 텔레비전, 신문이 없으니 자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게 없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에 불에 참석했다. 월정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염주 만들기다. 108배를 하면서 염주를 하나씩 꿰다. 일본

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몸은 힘들지만 염주를 완성해 놓고 보니 기쁨도 더 컸다.

월정사를 떠나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향했다. 신라 676년 의상대사에 창건된 고찰이다. 의상 대사는 일본 고산사에 진영이 소장돼 있다. 낙산사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가히 절경이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월정사와 거의 같지만 넓은 경내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월정사가 땅과 숲이 어울려진 템플스테이라면, 낙산사는 물과 하늘이 어울려진 템플스테이다.

마지막 목적지는 서울에 있는 **진관사**. 도착하니 신도 한 분의 49재가 진행되고 있었다. 목탁을 두드리는 염불 소리가 어쩐지 음악처럼 들린다.

이곳은 물, 바다, 숲, 산 등을 방황하는 영혼과 아귀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공양하는 수륙재가 유명하다. 한국 불교가 사자(死者)를 위한 의식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내를 둘러보다 2009년에 진관사에서 발굴된 항일운동자료와 태극기를 보고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이윽고 이어진 공양은 놀라웠다. 마치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죽여면 같았

다. 아재 튀김, 두부, 산나물 무침, 약식, 죽, 구수한 된장 등 스님께서 팔을 걷어 부치고 만든 음식을 보니 참가자들이 음식을 먹고 싶어 절에 다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3곳의 사찰 방문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일반인들은 물론 특히 스님들이 참여해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아직 모든 사찰에 일본어 안내책자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사찰도 소수라고 관광공사 측은 말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한국어 이해는 필수다. 예약 또한 직접 사찰에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신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움직임이 있고 역으로 일본불교를 배우러 온 한국인도 많은 줄로 안다. 한일 불교교류협회의 역사도 길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교 발전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한일 우호 관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일본 불교타임즈

社說

기부 문화 막는 세금정책 개정해야

2012년 발표된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문화는 세계 최하위다. 상위권에는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올랐지만, 한국은 국민국인 수단과 가나보다 못한 45위였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나눔의 문화에는 아직도 인색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안 좋은 한국의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금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르면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에 2500만원의 한도를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8월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제개편안'도 내년부부터 기부금 세금 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도록 했다. 조특법이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를 막았다면 세제 개편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중산층 기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포교도 급변하는 세상처럼 신개념으로

세상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맞춰 불교 포교 역시도 변화해야 하는게 일선 포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와는 상황이 틀리지만 일본 스님들도 이런 세대에 순응한 것인 지 포교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천문관을 설치한다든가 지우개 조각을 나눠준다든가 밴드를 조직한다든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도쿄시내, 그것도 자본과 소비, 욕망이 집약된 38층 쇼핑몰안에 단지 프로젝트성 ‘불교 카페’를 개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불교에도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베스트셀러 ‘만행’의 저자인 허버트출신의 현각 스님이 9월 9일 인터넷에 ‘Mirror of zen’ (선가귀감)이라는 동영상 공개한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불교 포교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포교의 눈높이를 젊은 감각에 맞춘 이 동영상은 크리스틴 슈미트너라는 다큐멘터리 겸 CF감독이 연출

이웃종교와 사회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불교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유수의 복지재단과 사찰, 문화단체, 모금기관, 종합학교들이 대부분 지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법정 기부금에 공제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단계를 통한 기부가 이뤄져야 하는 데 이런 상황이라면 풀뿌리 모금단체들의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현 정부가 약속했던 사업들을 위해 반발이 많은 직접세 대신 기부금 등 기존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 같은 세정은 싹을 틔웠던 한국의 기부문화를 고사시킬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의견을 경청해 조특법과 세제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했다.

이 동영상은 염불과 음악이 감각적으로 가미된 일종의 뮤직비디오다. 16분 길이의 영상에는 스님의 일상이 담겨져 있다. ‘꺼여있음’의 선적인 상태를 새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고민한 것이다. 독일 뮌헨서 ‘불이선원’을 개원해 서양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중인 현각 스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의 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참 고민하다 만든 결과물이다.

현각 스님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수수함을 알리는 방법이 14년 전에 만행이라는 책이 있었다면 지금은 비디오투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부각 시키는 게 아니라 선승의 하루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형식의 동영상 공개되자 예상대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숨이 멎을 정도로 감동적이라는 찬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국불교도 이런 현각 스님처럼 신개념 미디어 포교에 힘써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엔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엔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엔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국민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